

## 산란계자조금 영속성을 위한 제언

## 무임 승차자를 줄여라

2003년 이후 의무자조금 출범을 시도해오며 번번이 좌절을 겪어온 채란업계가 2월 대의원 총회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채란농가들이 열망했던 의무자조금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채란업계는 최종 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해야 하지만 계란의 불투명한 유통체계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된 거출이 불가능해 그간 업계는 사료회사, 부화장 등을 거출기관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했지만 각 업계의 거부로 인해 번번이 쓴 잔만을 마신 채 시간을 허비해 왔다.

지난해 산란노계를 도축하는 도계장을 거출기관으로 계란 대신 노계에서 자조금을 거출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면서 채란분야 의무자조금은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자조금 사업의 효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 끝에 이제야 본격적인 소비촉진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재민  
축산경제신문 기자

## 자조금 사업의 성패

자조금사업의 성패는 어떤 홍보기법을 사용하고 어떻게 광고를 잘 제작해 방영하느냐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좋은 카피 좋은 홍보기법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이보다 앞서 자조금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무임승차자의 최소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출연해 소비홍보를 하고 농가교육 등을 통



해 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알리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일부 계층이 자신들이 다할 의무인 기금 출연은 등한시 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얻어진 인센티브만 따 먹게 된다면 참여 농가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점차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낙농을 제외한 다른 축종들도 임의자조금을 오래 지속 될 경우 자조금 기반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임의자조금의 역사가 가장 긴 채란업계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일로 이 때문에 전 축산업계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 무임승차 논란 의무자조금에도 계속

의무자조금제도 도입과 채란계의무자조금 출범에도 불구하고 향후 무임승차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11월말 헌법재판소가 도축장의 자조금 거출과 관련 일부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자조금 납부 의무가 없는 축산업자에게서 거출 기관인 도축장이 강제로 자조금을 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자조금 납부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을 경우 도축장과 도계장은 자조금을 필히 거출해 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지만 만약 거출의사가 없을 농가가 발생할 경우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상황변화로 인해 자조금 납부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다시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특히 임의자조금 시행과정에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이른바 대군 사육농가들의 참여가 또 다시 저조할 경우 의무자조금 출범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의 거출이 순조로울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특히 중소 규모 사육농가들의 경우 납부액이 많지 않지만 대군 사육농가들의 납부액수는 한우나 낙농 등의 축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대군사육 농가들의 경우 역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정 한 기간 동안 쪼개서 납부하는 다른 축종과 달리 산란노계는 일시에 계군 전체를 도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하는 자조금 액수도 다른 축종과 비교할 수 없게 많은 것은 농가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묵은 논란인 강제 환우 등의 실시로

도축을 하지 않고 경제수명을 임의로 늘려나갈 경우 자조금 거출 규모가 매해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무자조금이 출범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채란업자들에게 계란의 소비증가 효과와 가치 향상 등에 관한 자조금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궁극적으로 계란유통혁명 필요

현재 채란자조금은 산란노계의 도축장을 통해 거출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명확하지 않은 계란의 유통경로가 가장 큰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에서 지적한 여러 이유로 인해 자조금의 영속성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노계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상관없겠지만 육계 수급조절 실패로 시장에 육계와 육용종계의 도태물량이 넘쳐날 경우 산란노계의 가격은 바닥을 치고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도축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할 수 있어 자조금 거출에 혼란도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노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결국 자조금 사업은 판을 다시 짜야 하는 형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계란에서의 자조금 거출은 매일 일정액을 분납 할 수 있게 되고 농가의 부담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계란을 통해 자조금을 거출하기 위해서는 중구난방으로 유통되는 계란을 도축장이나 유품공공장과 같이 GP센터를 통해 유통될 수 있게 거래방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다른 축산물과 달리 생산과 동시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계란을 GP를 통해 유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계란의 위생과 안정성 논란, 상온유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유에 버금가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 HACCP 인증된 GP를 통한 세척 및 포장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디서 생산되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계란의 위생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계란의 가치를 다시 인정받는 계기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계란의 유통체계를 혁신할 경우 앞에서 지적했던 계란으로부터의 자조금 거출도 가능해져 자조금사업의 영속성은 물론 계란산업의 일대 도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양계**